불교무용 대제전… 창작, 전통, 현대 등

'제5회 불교무용대전(BDF), 지평을 넘어'
4월 5일부터 28일까지 성균소극장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와 함께 4월 5일부터 4월 28일까지 성균소극장에서 제5회 불교무용대전을 개최한다.

불교무용예술의 저변 확대와 밝은 미래를 조명하기 위한 불교무용대전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교무용예술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고 있는 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의 주최로 2015년에 시작됐으며, 2016년부터 불교무용예술의 진흥과 확대를 도모하고자 조계종 주최로 이어져왔다.

매년 공모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불교무용대전은 올해 국내 17개 단체가 참가해 작년에 비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특히 창작무용과 전통무용, 현대무용과 한국무용이 한데 어우러져 새로운 무용의 분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비디오 심사를 통한 예선과 세 번의 본선 공연 그리고 결선을 따로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무용대전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금까지 불교무용의 외연과 실적은 개인의 원력이 많은 부분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종단 차원에서의 불사는 미미했다. 무용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개인의 원력을 모으기 위해 2016년부터 종단 차원의 불교무용대전이 시작됐다.

대학로 소극장에서 진행된 제1회 불교무용대전은 13개 팀이 4주간 12회의 공연을 진행하면서 무용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불교인이 아닌 이웃종교나 무종교인들도 불교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으로 공연에 참가한 것이 놀라운 점이었다.

2016년, 불교무용대전을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에서 주최함으로서 명실상부한 불교무용의 태동을 알리는 계기가 마련됐다. 개인의 원력에만 의지하던 한국불교무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창작과 전승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를 기념하는 불교무용세미나가 진행되었으며, 수상을 통하여 무용계 전반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2017년, 제3회 불교무용대전에서는 확실히 규모나 체계면에서 한층 더 발전했다. 20여 개의 무용팀이 참가하면서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한국 무용계의 특별한 무용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제4회 불교무용대전 모습. 태혜신 作 '연화경승무'

2018년, 제4회 불교무용대전은 무엇보다 국제무용제로의 변환을 특색으로 들 수 있다. 아시아를 대표할 만큼 유명한 홍콩의 HKDC(홍콩댄스 컴퍼니), 싱가포르의 오디세이 댄스컴퍼니에서 레지던시를 통하여 불교무용을 선보였으며 한국의 무용가들 역시 불교라는 공통점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2019년 올해는 불교무용대전이 또 한 번 발전한다. 비디오 심사를 통한 예선, 4주 12회의 본선을 통과하여 7개 팀이 결선을 가지는 '대전'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무용계 전공자에 한정되었던 축제를 비전공자들에게도 개방함으로서 불교의 자비와 평등정신을 실현하게 된 것도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5회 째를 맞는 불교무용대전은 해결해야 될 숙제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일반적인 공연과 같이 전공자나 무용예술인들의 관람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불자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이 앞으로 한국불교무용이 외연을 넓히는 데 있어 풀어야 할 숙제 중의 하나라는 것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제5회 불교무용대전 본선은 4월 5일(금)부터 4월 28일(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일요일 오후 5시에 성균소극장에서 공연이 진행되며, 5월 4일 오후 3시 조계사 야외마당(협의중)에서 결선 및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02)2011-1770.

가슴 속 따뜻하게 번지는 선묵

유현병 문인선화전
갤러리까루나 3월 1~15일

힐링 공간을 추구하는 갤러리 까루나(바로자나 국제선원 내)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유현병 문인선화전'을 개최한다.

문인선화는 문인화와 선화의 만남으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소재라도 교훈을 삼고 가치를 담아 그림으로 묘사하여 그림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가슴으로 느끼고 깨우침을 얻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문인화는 문인이 그린 그림이라는 의미로 문인들이 지녔던 인문주의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물의 세부묘사 등 회화적인 요소보다는 사물 내면을 표현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 화풍이나 기교에 구애되지 않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표현하는 문인화는 지필묵의 전통적인 회화 형식 속에 '인문'이라는 내용을 담아 새로운 감상체계를 추구한다.

선화는 '선(禪)'의 세계를 그린 그림으로, 선종(禪宗)의 교의는 물론 선의 정신, 즉 본래 마음의 영역을 표현하는 그림이다.

선종의 이상은 여러 가지 특별한 예술양식으로 표현됐는데, 그 중 전형적인 것은 선에 몰입한 순간 만나게 되는 직관적, 개별적 깨달음을 암시적으로 그려내는 것이다. 모습이 없는 관념의 세계를



현실로 옮기는 작업으로 대부분의 표현이 비유적이고 상징적이다.

유 작가가 추구하고 있는 문인선화는 사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문인화와 마음의 영역인 관념의 세계를 그려내는 선화의 만남으로,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현대미술이다. 우리 고유의 '인문'과 그려낼 수 없는 '선'의 세계를 그리는 미술이다.

인간의 희로애락을 소재로 치유의 미학을 추구하며 문인선화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온 유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도 보는 이가 그림을 보고 읽음으로써 미소 지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특유의 선묵에 따뜻한 메시지를 적어 깨달음의 세계를 전한다.

"행복이란 밖에서 오는 행복도 있지만 자기 마음 안에서 향기처럼, 꽃향기처럼 피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유 작가의 시그니처라고도 할 수 있는 동자승의 환한 미소와 깊은 성찰에서 비롯된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한 폭의 그림은 따뜻한 햇살처럼 보는 이의 가슴 속으로 번진다.

보는 이들로 하여금 휴식과 안식을 느끼게 하는 그의 그림들은 각박한 삶 속에서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과 행복 그리고 위로와 안식을 선물한다.

유병현 작가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유학에 정통했던 조부의 영향을 받아 일찍이 붓을 들었다. 국내 개인전 및 해외 단체전 30회를 열었고, 대한민국 미술대전, 전남미술대전, 남농미술대전, 소치미술대전, 경기미술대전 등 여러 차례 공모전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을 지냈다.

또한 대한민국 미술대전 문인화부문 초대작가, 대한민국 문인화 휘호대전 초대작가를 지냈다. 2016년 문인화부문 명인인증(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을 받았으며, 2016년 대한민국문화예술공헌 대상, 대한민국 통일 미술대전 통일부 장관상, 대한민국 문화예술 공헌 대상 등 다수 수상했다. (02)6012-1731.

박재완 기자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음악회

'佛音 부처님의 소리'
4월 2일 국립국악원 예악당

조계종 불교음악원(원장 박범훈)은 불기 2563(201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음악회 '佛音 부처님의 소리'를 4월 2일 오후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개최한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의례위원회와 불교음악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음악회는 의식음악에서부터 창작 찬불가까지 다양하게 선보인다.

의식음악은 염불교육지도위원장인 화암스님과 노래를 통해 대중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도신 스님(서광사 주지)이 한글예불(오분향게, 헌향진언)과 염불조의 삼귀의, 사홍서원, 한글반야심경을 각각 선보인다. 특히 오분향게와 헌향진언은 관현악 반주에 합창으로 편곡했으며, 염불조의 삼귀의, 사홍서원, 한글반야심경은 가락을 염불조로 바꾸어 불교의식음악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국악찬불가는 국립창극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은경, 마당놀이 '춘풍이온다'에서 추월주역을 맡은 홍승희, 봉은국악합주단 단원인 이이화, 이미리 단원이 출연하여 보렴과 가야지, 무상계, 어화너를 선보인다. 이어지는 무대는 불교가 무속음악에 끼친 영향을 확인해볼 수 있는 '천도'이다. 원래 진도 씻김굿에서 부르는 무가(巫歌)인데 곡의 가사가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불가(佛歌)로 되어있다. 노래는 동초제 판소리보존회 이사인 정신예 씨가 부른다.

마지막 창작 찬불가는 니르바나(Nirvana) 교성곡이다. 시를 음악으로 표현한 곡으로, 도올 김용옥이 작시했다. 김용옥은 "번뇌 속에 사는 인간, 번뇌 속에 격동치는 한국사회, 그것이 곧 해탈이요 니르바나다"고 했다. '붓다', '보현행원송', '부모은중송', '용성', '진감'에 이어서 박범훈 불교음악원 원장이 새롭게 작곡했다. 노래는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불음합창단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녀 씨가 부른다.

지휘는 박범훈(불교음악원 원장), 김회경(불교음악원 음악감독), 박천지(봉은국악합주단 지휘자), 연주는 봉은국악합주단 중앙국악관현악단, 합창은 불음합창단, 불교합창아카데미, 봉은사합창단, 메트오페라합창단이 출연한다. 티켓은 불교음악원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R석5만원 S석3만원. (02)3218-4866.

박재완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